

남양주시 그린농업대학 운영 사례

최수호*

1. 서 론

한국농업은 대외적으로 WTO/DDA 협상의 진행과 다수국과의 FTA 체결과 진행 등 전면적인 농산물 수입개방 시대에 직면해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안전하고 품질높은 농산물 생산과 더욱 고급화된 상품화와 유통 등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 증대에 따라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웰빙, 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수입농산물의 과다 범람 및 유해논란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자급자족에 따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충족시켜줄 마땅한 농업인 교육기관이 없었다. 특히, 주 5일제 근무제와 긴장한 생활에 대한 삶의 욕구가 증대되면서 도시근교 주위에 주말농장과 전원생활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전원농생활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컸다.

농업이 시장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발상이 절실히 필요한 위기상황이다. 늘 환경변화를 주시하고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스스로의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현실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의 농업인들은 다수가 여전히 실정법이나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전통적인 정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우리 농업인들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지도사. e-mail: csh@hanmail.net

스스로 의식구조, 직업관 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쟁 지향적이고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 경영을 통하여 경쟁할 수 있는 우리 농업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 해결방안은 지역 인재육성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선4기 공약사업 및 명품사업으로 남양주시그린농업대학 운영을 계획하고 운영하게 되었다.

우리 지역농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일고 있는 환경변화의 물결에 걸맞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즉 변화만이 살길이라는 명제와 함께 남양주시그린농업대학의 비전을 미래의 남양주 농업을 디자인해 나갈 수 있는 정예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제시하였다.

토지와 인력에 의존하던 농업이 기술과 자본+지식이 집약되는 종합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품목에 따라서는 농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자연조건보다는 자본과 기술, 서비스, 경영능력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되고 있다. 그러므로 농업인도 단순생산자가 아닌 선진경영기법과 시장장악력을 가진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해야 할 시기이다. 이제 농업발전의 성패는 농업인들의 사고방식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만 농업인의 성공과 발전이 보장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생산적인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술혁신의 노력과 비즈니스 감각을 갖추는 등 구체적으로 나타난 변화를 남보다 앞서 수용하는 겸허한 자세와 더불어,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곧 능력있는 인재육성만이 현재는 물론 미래시대를 대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고 그 수단은 교육인 것이다. 21세기 글로벌시대 농업CEO의 역량과 마인드가 성공을 좌우한다는 명제아래 자체 100% 시비로 그린농업대학을 운영하게 되었다. 남양주시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이자 중농학자인 다산 정약용선생의 고장으로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주창하신 상농(上農: 농업인의 지

위향상), 후농(厚農: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편농(便農, 편하고 쉬운농사)이라는 농업정책을 밑바탕으로 남양주시그린농업대학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2년째 운영되고 있는 남양주시그린농업대학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중심으로 이론 및 실습, 선진지견학, 현장교육, 해외연수, 독후감 제출, 졸업작품전시회, 컴퓨터자격증 취득, 국가기술자격증(유기농업기능사, 원예기능사) 취득, 친환경농산물 인증획득, 다양한 동아리(국화재배연구회, 유기농업연구회, 컴퓨터연구회, 전통차연구회 등) 활동, 충동문화 및 충학생회의 자율적인 학생자치활동 보장 등 다양한 커리큘럼 및 교과과정으로 운영으로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어 2007년도 학사운영 사례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남양주시 농업현황 및 발전전략

2007년 11월 현재 남양주시 농업 현황을 살펴보면 농가수는 6,389호로서 남양주시 전체 가구수(176,629호)의 3.7%이며 농가 인구는 24,684명으로 남양주인구수(483,046명)의 5.2%를 점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전체 4,719ha로서 전 3,892ha, 답 827ha이다. 호당 경지면적은 0.74ha이며 주요 작목의 재배면적은 <표 1>과 같다. 특히,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채소판매 점유율을 살펴보면 참나물의 경우는 50.5%, 아욱은 32.7%, 쑥갓은 17.2%로서 채소판매 점유율에 전국 1위를 나타내고 있을 정도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 점유율이 매우 높다. 또한 시금치의 경우는 14.2%의 점유율로서 전국 3위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주요 작목의 재배면적

구분	비	채 소		과 수		화훼	발작물 기 타	버섯	장뇌 산삼	축산(사육두수/ 농가수)		
		시설	일반	배	포도					유우	한(육)우	양돈
면적(ha) (100%)	600 (12.7)	1,655 (35.0)	629 (13.3)	452.1 (10.6)	44 (0.9)	19 (0.4)	1,275 (27.0)	5.6 (0.1)	200 (산림)	7,702 202	6,629 331	12,514 36

남양주시의 농업발전을 위한 비전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양주 시민인 소비자와 농업의 최대 만족을 창출시키는 것으로서 농업 핵심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어 남양주시 그린농업대학 운영도 남양주 목표이기도 하다.

〈표 2〉 남양주시 농업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출처: 남양주시농업 장기발전계획)

비 전	남양주 시민(소비자, 농업인)의 최대만족 창출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품, 명인, 명소화로 남양주농업을 미래형지도사업 모델로 제시 • 남양주먹골배,채소,한우,관광농업,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핵심인재 양성과 시민서비스 확대로 명품화
기본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을 살린 남양주농업의 차별화 • 소비자 기호와 환경보전에 기초한 명품 농업 실현 • 핵심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농업의 유지 발전 • 자원 절감형 첨단기술 적극 수용 • 수확 후 관리 및 가공,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증대 • 사회변화와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한 명품농업 육성
명품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2007~2016(2단계 5개년 계획) • 사업대상: 7개 분야 20과제(연도별, 단계별로 추진) 제1단계(2007~2011), 제2단계(2012~2016)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업 여건과 현실에 맞는 실현 가능한 사업개발 보급 - 민간업체, 대학, 전문연구소, 독농가, 농촌진흥청 등과 연계추진
투자재원	총투자액 23,030백만 원(1단계 5년간 ⇒2007~2011)

2.2. 남양주시그린농업대학 운영현황

남양주시그린농업대학 운영은 21세기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변화에 발맞

추어 다산 정약용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학사상과 상농(上農: 농업인의 지위향상), 후농(厚農: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편농(便農, 편하고 쉬운농사)이라는 이념을 밑바탕으로 2006년도에 개교하여 2006년 7월 남양주시 민선4기 공약사업 및 명품사업으로 채택되어 각종 언론매체 및 많은 농업인과 시민들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철저하게 입학전형에서 서류 심사 및 면접을 거쳐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1월 홍보기간을 거쳐 2월에 입학원서를 접수하여 3월 초에 신입생을 엄격하게 선발하여 3월 중순부터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되어 12월에 졸업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그린농업대학은 단순한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닌 농업인으로서 또는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전문가적인 지식함양을 필요로 하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교과과정으로는 채소과, 과수과, 관광농업과, 가정원예과 등 4개학과 150명을 대상으로 1년 과정으로 140주 이상으로 학사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요강사로는 자체 전문지도사를 중심으로 전문분야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교과과정으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전문과정과 민주시민 및 농업인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교양과목을 중심으로 정보화 시대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과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교과과정외 국가 기술자격증반을 운영하였다. 중점 교육목표는 농업인 핵심인력육성을 바탕으로 유기농업기능사 등 1인 자격증 갖기와 국화재배연구, 전통차연구 등 1인 1특기 활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성과를 높이고 있다. 특히, 〈표 4〉 학사규정에 의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학장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함은 물론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사과정에 경쟁의식을 유발하여 더욱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 또한 출석의 75% 이상을 수료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아울러 농림분야 지원사업 및 시범사업 선정시 교육점수를 높이

반영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 전형방법은 영농규모, 영농경력, 연령, 학력, 추천서, 면접 등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표 6> 2007년 그린농업대학 재학생의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1: 3이며 연령대는 40대, 50대가 77.3%로서 4,50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학력의 경우 고졸과 대졸(전문대졸 포함)이 72%로서 학력수준이 매우 높으며 귀농을 준비하거나 귀농한 대학원 졸업자도 4명이나 되어 농업인대학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 또한 경지면적의 경우 6,600~12,000㎡을 소유한 재학생이 56.7%로서 그린농업대학의 인적 자원 구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린농업대학 커리큘럼은 과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한 이론교육을 벗어나 채소과의 경우 선도 시설채소 재배농가 현장학습과 과수과의 경우 전지전정실습 등 현장실습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의 질과 효과를 올리고 있으며 관광농업과의 경우 관내 관광농장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원예과는 주로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른 농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를 선도할 정예인력 육성을 목표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

<표 3> 남양주시 그린농업대학 운영 현황(2007년)

구분	내용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 2조 및 제 7조(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 17조(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 남양주시 조례 제 712호(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추진배경	○ 남양주시 민선4기 공약사업 4122 그린농업대학 활성화
추진목적	○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인력 양성 ○ 농업의 지속발전과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관으로 위상정립
설립일	○ 일자: 2006. 3. 10(1년과정 40주 이상) ○ 과정 및 인원: 2개과 75명(채소과 40, 과수과 35) ○ 졸업: 2006. 12. 20(수) 74명 졸업

구분	내용
운영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 2007. 3~12월(수업일수 40주 이상) ○ 운영학과: 채소과, 과수(배)과, 관광농업과, 가정원예과 ○ 교육시간: 매주 13: 30~17: 30 (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화요일: 관광농업과, 가정원예과 - 매주 목요일: 채소과, 과수과 ○ 교육인원: 1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과 35, 과수(배)과 35, 관광농업과 40, 가정원예과 40 ○ 교육장소: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 교육장사: 자체강사 및 외래 초빙강사 - 분야별 자체강사 및 외래 전문강사 위촉으로 교육만족도 제고
운영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공통: 민주시민 및 전문 농업인으로서 필요한 교양지식 습득 - 전문기술: 분야별 이론, 실습, 현장교육 등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 - 정보화 시대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 한국생산성본부 ITQ자격증 취득 - 명실상부한 전문가 육성을 위한 농업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 졸업자격: 75%이상의 출석 및 연구논문 제출시 졸업자격 부여
운영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장: 남양주시장(부학장: 농업기술센터소장) ○ 교수부: 50명(남양주시지도직공무원 10명, 외래강사 40명내외) ○ 교학처: 9명(교학과 4명, 과정장 4명)
소요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예산액: 77,400천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예산: 강사비, 교육시설비, 교육교재비, 해외연수비 등 - 자부담: 졸업앨범 제작 및 현장견학, 학생자치활동 비용 등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1자격증 갖기: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지원 ○ 1인 1특기 갖기: 각종 동아리 활동 지원 ○ 자율적인 학생회 및 동문회 활동 적극 지원
특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규정에 의거 수료한 학생에 대하여 시장명의 수료증 수여 ○ 졸업자는 지원사업 및 시범사업시 교육점수 가산으로 우선권 부여 ○ 성적우수자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는 표창 수여 ○ 학업 및 성적이 우수학생에 대하여는 해외연수 기회 부여

〈표 4〉 성적우수자 평가방법

구분	계	출석	시험 (중간,기말)	과제물제출	컴퓨터능력 자격증취득	국가기술 자격증취득
배점	100점	30점	20점	20점	15점	15점
비율	100%	30%	20%	20%	15%	15%

〈표 5〉 신입생 선발방법

구 분	전형항목별 배점						가산점	총점
	영농규모	영농경력	연 령	학 력	추천서여부	면접		
점수(점)	30	10	10	10	10	30	50	150
비율(%)	30%	10%	10%	10%	10%	30%		

〈표 6〉 2007년 그린농업대학 학생 현황

구 분	연 령		학 력		경 지 면 적	
전체 (150명)	20대	2명(1.3%)	초졸	11명(7.3%)	3,300㎡ 이하	15명(10.0%)
	30대	12명(8.0%)	중졸	27명(18.0%)	3,300-6,600	31명(20.6%)
	40대	51명(34.0%)	고졸	79명(52.7%)	6,600-12,000	27명(18.0%)
	50대	65명(43.3%)	대졸	29명(19.3%)	12,000㎡ 이상	58명(38.7%)
	60대	20명(13.3%)	대학원졸	4명(2.7%)	기타(비농업)	19명(12.7%)
채소과 (35명)	20대	-명(0%)	초졸	3명(8.6%)	3,300㎡ 이하	2명(5.7%)
	30대	6명(17.1%)	중졸	8명(22.8%)	3,300-6,600	8명(22.9%)
	40대	13명(37.1%)	고졸	20명(57.1%)	6,600-12,000	7명(20.0%)
	50대	15명(42.9%)	대졸	3명(8.6%)	12,000㎡ 이상	17명(48.6%)
	60대	1명(2.9%)	대학원졸	1명(2.9%)	기타(비농업)	1명(2.9%)
과수과 (35명)	20대	2명(5.7%)	초졸	3명(8.6%)	3,300㎡ 이하	1명(2.9%)
	30대	3명(8.6%)	중졸	6명(17.1%)	3,300-6,600	5명(14.3%)
	40대	10명(28.6%)	고졸	17명(48.6%)	6,600-12,000	2명(5.7%)
	50대	9명(25.7%)	대졸	9명(25.7%)	12,000㎡ 이상	27명(77.1%)
	60대	11명(31.4%)	대학원졸	-	기타(비농업)	-
관광농업 (40명)	20대	0명(0.0%)	초졸	3명(7.5%)	3,300㎡ 이하	5명(12.5%)
	30대	1명(2.5%)	중졸	8명(20.0%)	3,300-6,600	11명(27.5%)
	40대	12명(30.0%)	고졸	22명(55.0%)	6,600-12,000	13명(32.5%)
	50대	25명(62.5%)	대졸	6명(15.0%)	12,000㎡ 이상	10명(25.0%)
	60대	2명(5.0%)	대학원졸	1명(2.5%)	기타(비농업)	1명(2.5%)
가정원예 (40명)	20대	0명(0.0%)	초졸	2명(5.0%)	3,300㎡ 이하	7명(17.5%)
	30대	2명(5.0%)	중졸	5명(12.5%)	3,300-6,600	7명(17.5%)
	40대	16명(40.0%)	고졸	20명(50.0%)	6,600-12,000	5명(12.5%)
	50대	16명(40.0%)	대졸	11명(27.5%)	12,000㎡ 이상	4명(10.0%)
	60대	6명(15.0%)	대학원졸	2명(5.0%)	기타(비농업)	17명(42.5%)

2.3. 남양주시그린농업대학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1년 176시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외연수, 자격증 취득과정 등을 포함하면 1년에 300시간 가까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3.1. 채소과

구 분	교 과 목	시 간			교 수	
		계	자체	외래	자체교수	외래교수
교양공통	농업정책	4		4	-	외래강사
	관광농업	6		6	-	외래강사
	친환경농업	6		6	-	외래강사
	농업기계	6	6	-	자체강사	-
	법률상식	2	-	2	-	외래강사
	특 강	8	4	4	학장, 부학장	외래강사
전공필수	채소재배학	48	6	42	자체강사	외래강사
	채소재배학 과제발표	4	4	-	교 학 처	-
전공공통	유통 및 마케팅	10	6	4	자체강사	외래강사
	작물재배학	4	4	-	자체강사	-
	토양비료학	10	4	6	자체강사	외래강사
	농업정보화	20	10	10	자체강사	외래강사
특별활동	체육활동	8	8	-	교학처	-
	선진농장 현장연찬	32	32	-	교학처	-
	브레인스토밍 (주제별 토론학습)	8	4	4	자체강사	외래강사
계		176	88	88		

2.3.2. 과수(배)과

구 분	교 과 목	시 간			교 수	
		계	자체	외래	자체교수	외래교수
교양공통	농업정책	4	—	4	—	외래강사
	관광농업	6	—	6	—	외래강사
	친환경농업	6	—	6	—	외래강사
	농업기계	6	6	—	자체강사	—
	법률상식	2	—	2	—	외래강사
	특 강	8	4	4	학장, 부학장	외래강사
전공필수	과수(배)재배학	48	6	42	자체강사	외래강사
	배 재배학 과제발표	4	4	—	교 학 처	
전공공통	유통 및 마케팅	10	6	4	자체강사	외래강사
	작물재배학	4	4		자체강사	
	토양비료학	10	4	6	자체강사	외래강사
	농업정보화	20	10	10	교학처	외래강사
특별활동	체육활동	8	8	—	교학처	—
	선진농장 현장연찬	32	32	—	교학처	—
	브레인스토밍 (주제별 토론학습)	8	4	4	자체강사	외래강사
계		176	88	88		

2.3.3. 관광농업과

구 분	교 과 목	시 간			교 수	
		계	자체	외래	자체교수	외래교수
교양공통	농업정책 및 친환경농업	10	-	10	-	외래강사
	유통 및 마케팅	6	4	2	자체강사	외래강사
	농업기계	6	6	-	자체강사	-
	법률상식	2	-	2	-	외래강사
	특 강	8	4	4	학장, 부학장	외래강사
전공필수	관광농업학	48	6	42	자체강사	외래강사
	관광농업 과제발표	4	4		교 학 처	-
전공공통	작물재배학	4	4	-	자체강사	-
	채소재배기초	4	4	-	자체강사	-
	과수재배기초	4	4	-	자체강사	-
	화훼재배기초	4	4	-	자체강사	-
	토양비료학	4	4	-	자체강사	-
	농촌조경	4	-	4	-	외래강사
	농업정보화	20	10	10	교학처	외래강사
특별활동	체육활동	8	8		교학처	-
	선진농장 현장연찬	32	32		교학처	-
	브레인스토밍 (주제별 토론학습)	8	4	4	자체강사	외래강사
계		176	98	78		

2.3.4.가정원예과

구 분	교 과 목	시 간			교 수	
		계	자체	외래	자체강사	외래강사
교양공통	농업정책 및친환경농업	10		10	-	외래강사
	유통 및 마케팅	6	4	2	자체강사	외래강사
	농업기계	6	6	-	자체강사	-
	법률상식	2	-	2	-	외래강사
	특 강	8	4	4	학장, 부학장	외래강사
전공필수	가정원예학	48	6	42	자체강사	외래강사
	가정원예 과제발표	4	4		교 학 처	-
전공공통	작물재배학	4	4	-	자체강사	-
	채소재배기초	4	4	-	자체강사	-
	과수재배기초	4	4	-	자체강사	-
	화훼재배기초	4	4	-	자체강사	-
	토양비료학	4	4	-	자체강사	
	농촌조경	4	-	4	-	외래강사
	농업정보화	20	10	10	교학처	외래강사
특별활동	체육활동	8	8		교학처	-
	선진농장 현장연찬	32	32		교학처	-
	브레인스토밍(주제별 토론학습)	8	4	4	자체강사	외래강사
계		176	98	78		

2.4. 주요 추진성과

2007년도 그린농업대학 운영결과 12월 4일 4개과 2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사만족도는 65%가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교육내용 및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는 72%가 만족도를 나타냈

다. 또한 학사운영 전반적인 만족도는 67%, 1년 교육결과 실제 영농에 되었는가는 89% 영농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교육교재, 교육시설,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57%로서 많은 교육여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걸로 조사되었다.

〈표 7〉 2007년 그린농업대학 운영결과 설문결과(응답자 80명)

설문내용	설문결과	응답자수(명)	비율(%)
강사 만족도	①매우 만족	13	16
	②만족	39	49
	③보통	27	34
	④불만	1	1
	⑤매우 불만	0	0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①매우 만족	10	13
	②만족	47	59
	③보통	18	23
	④불만	5	6
	⑤매우 불만	0	0
전반적인 학사운영 만족도	①매우 만족	9	11
	②만족	45	56
	③보통	25	31
	④불만	1	1
	⑤매우 불만	0	0
교육결과 실제 영농에 도움이 되었는가?	①매우 도움이 됨	23	29
	②도움됨	48	60
	③그저 그렇다	9	11
	④별로 도움이 안 됨	0	
	⑤전혀 도움이 안 됨	0	
교육교재 교육시설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	①매우 만족	10	13
	②만족	35	44
	③보통	29	36
	④불만	6	8
	⑤매우 불만	0	0

2007년도 남양주시그린농업대학 운영결과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제도적인 틀에서 합법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경기도 최초로 농업인 대학에 대한 조례를 10월 17일 제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2008년도 농업인 대학 순수 지방비 예산확보는 2007년 77,200천 원에서 152,771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8% 증액 되었다. 주요 예산 확보를 내역을 보면 학사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 8,871천 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공동체 한마음 체육행사비 22,000천 원, 해외농업기술연수비 120명 48,000천 원, 현장교육 실습재료비로 12,000천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국비 포함하여 총 1억 7천 8백 만 원의 예산으로 2008년도 그린농업대학을 운영하게 되어 1인당 학생 교육비를 1,482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은 예산이 증액 되었다.

둘째, 2007년도 학사운영의 특별 교과과정 운영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10월말 현재 63명이 취득하여 명실상부한 농업인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기농업기능사 20명(전년 9명), 원예기능사 10명, 컴퓨터 자격증 20명, 친환경농산물 인증 13명(전년 3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셋째, 단순한 이론교육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실습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가정원예과의 경우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그동안 배운 실력을 졸업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넷째, FTA등 국내외 농업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남양주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전문농업 인력 양성을 위해 년 1회 해외 농업기술연수, 선진농장 벤치마킹 및 현장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현장교육결과 보고서 작성 및 레포트 제출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양성에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대학 운영을 통해 농촌지도기관을 선진국처럼 명실상부한 농업인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2.5. 문제점 및 개선방안

2년 동안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대부분 직원들이 농업인대학 업무의 과중 때문에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며 그러다 보니 일부 시군에서는 형식적인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다보니 부실해 지는 경우가 있다. 담당자의 철저한 담당업무에 대한 경영마인드가 업무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본다. 시군마다 지역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학사운영 프로그램이 달라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경기 이천시의 경우 이천쌀이 지역 브랜드이며 남양주의 경우는 남양주먹골배와 시설채소가 지역 특산물이다. 그런데 남양주에 Best Rice과정을 개설한다면 학생 모집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힌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2년 동안 농업인 대학 운영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뚜렷한 농업인 대학에 대한 목적의식의 부재이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간다”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태반이다. 남양주시의 경우는 전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부장관이었던 이성호회원의 제안과 유기문농업기술센터소장의 농업분야 인재양성만이 우리농업의 살길이라는 강력한 추진의지로 설립하게 되었다. 둘째, 1년의 학사과정으로는 농업인 CEO를 양성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본다. 4년 대학과정을 1년으로 압축한다는 각오로 추진했지만 역시 뭔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다. 앞으로는 2년 이상의 학사운영 과정을 도입하여 내 분야에서 최고의 CEO가 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CEO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배기술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 컴퓨터도 알아야 하고 농기계도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유통 및 마케팅에서도 마인드가 있어야 하고 새로운 정보 및 변화에서도 남들보다 앞서 가려면 1년 과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셋째, 농업인 대학 학사운영에 대한 인력 부족 및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다. 대다수 시군이 담당자 혼자서 대학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담당 혼자서 교학과, 학생과, 수업과, 경리과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

는 실정이다 보니 농업인 대학과정이 부실해 지기 쉽다. 넓은 관점으로 농업인 대학 운영 부서 및 인력을 확충해 주어야만 한다고 본다. 남양주시의 경우는 인력 해소를 위해 공공근로 2명을 포함 3명이 운영하는데도 인력 부족을 메울 수가 없어 매일 야근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도 도맡아 한다. 학생모집 홍보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입생 접수 및 선발, 입학식, 봄철, 가을 철 체육행사, 과제물 정리, 동문회 및 학생회 육성 및 지원, 각종 간행물 발간, 학생증 발급, 수업체크, 가정방문 등 학생현황 파악, 학생 연구활동 지원, 동아리 활동 지원, 각종 자격증 시험 지원, 현장교육 및 현장실습 준비, 강사섭외 및 커리큘럼 작성, 해외연수 추진, 평가관리, 예산 확보 및 지급, 졸업식 등으로 시간에 쫓기고 있다보니 담당자가 지치게 마련이다. 넷째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의 부재이다. 지역 농업인 및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그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최고의 강사진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선을 보이면 성공 할 수가 있다. 한 예로 요즘 농촌 현장에서 인터넷 농산물 직거래와 외국인 고용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농업인들이 컴퓨터를 할 줄 모르며 영어도 못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이 많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그 변화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다양한 평생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요구 및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3. 결 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 농촌지도기관을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백화점식 나열식 교육보다는 농업인 대학을 더욱 발전 육성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예산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제 농업인대학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며 심지어는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평생학습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 가운데 그동안 농업인은 평생학습교육에서 소외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농업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농업인 대학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한 예로 일부 시군의 농업인 대학은 “농업인대학”이 아니라 “노인대학”이라는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만큼 지역 실정에 맞게 현실적인 고려를 하여 농업인대학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2년째 남양주시그린농업대학을 운영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다. 때론 힘들고 고통스럽고 후회하기도 했지만 스승의 날 장미꽃 한송이가, 사무실 책상 아래 어떤 학생이 몰래 갔다 놓은 짬채소 한 박스에 “선생님 힘내세요. 고맙습니다”라는 글귀에 모든 것을 잊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다산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읽고 독후감을 내라고 할 때 다들 괜히 쓸데없는 일을 시킨다는 원망의 눈빛도 있었지만 막상 1달 후 독후감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제출하면서 “선생님 정말 좋은 책을 읽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이지 몇 년만에 책을 읽은지 몰라요. 이 책 읽고 감명받아 군에 간 우리 아들에게 보내 주었어요” 라는 글을 읽을때는 그동안 고생은 비록 했지만 자부심과 긍지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었다. 현장교육 결과 레포트 내세요!. 해외연수 결과 레포트 내세요! 졸업 논문 다 쓰셨지요! 독촉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다. 다음주에는 각자 써 온 졸업논문 발표 및 심사가 있는 날이다. 비록 논문형식에는 맞지 않지만 나름대로 처음 써 본 졸업 연구논문 중에 쓸만한 논문이 있기도 하여 농업정책 및 시범사업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재쳐두고라도 해외연수를 못간 어떤 학생이 가방을 들고 학교에 출근한다. 오늘은 수업이 없다고 하면 웬지 수업을 안받으면 일이 안되고 허전하다는 이야

기를 들을 때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참 좋아진다.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낀다. 농업 현실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와 흐름에 대처할 수 있는 농업인은 얼마나 될까? 일에 지쳐 세상의 변화에 따라 가지도 못하는 농업인이 많이 있지만 농업인 대학에 다니면서 세상의 흐름을 읽고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정보를 얻는다는 어느 학생의 이야기가 눈에 선하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각오로 졸업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상시 연구모임을 계획 중이다. 전통주연구회, 전통차연구회, 컴퓨터연구회, 유기농업기능사연구회, 원예기능사연구회, 친환경농산물인증연구회, 국화재배연구회, 극단 농부, 사물연구회…….



<그림 1> 취득한 컴퓨터자격증



<그림 2> 그린농업대학 학생증



<그림 3> 2006년 졸업식 장면



<그림 4> 2007년 입학식 장면



〈그림 5〉 일반 이론 수업장면



〈그림 6〉 현장교육 장면



〈그림 7〉 컴퓨터 수업장면



〈그림 8〉 강진 농촌테마마을 건

〈그린농업대학 운영 주요장면〉